

먼저, 표 1 을 살펴 보았을 때, 건강 상태
 가 상인 사람의 비율이 고학력자 일수록
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. 고졸 미만과
 고졸은 5.6% p, 고졸과 대학 이상은
 11.2% p 의 차이를 보여 단조적으로
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건강 상태
 중과 하에서 고졸 미만과 고졸을 비교
 해 봤을 때, 중간에서 고졸 미만이
 고졸보다 낮고, 하에서 고졸보다 높으므
 로 어느 정도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인
 과관계가 성립된다. 하지만 첫 번째 주
 장에 따르면 건강 하에 있어서도 대학
 이상이 고졸보다 낮은 수치를 가져야
 하지만, 오히려 4.3% p 더 높은 수치를
 보인다. 따라서 건강 상태와 교육수준
 만으로는 타당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
 어렵다.
 한편, 표 2 를 살펴 보았을 때, 소득수준
 중간층과 하층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
 록 건강 상태 상층에 속한 비율이 단조

적으로 증가하고, 하층에 속한 비중이
 단조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수준에
 따라 건강상태가 비례함을 알 수 있고,
 두 번째 주장이 첫 번째 주장에 대해
 보완적이라는 것이 타당성을 얻는다. 하
 지만 소득수준 상층에서 교육수준이 높
 아짐에 따라 건강상태가 상인 사람의
 비율은 높아지나, 하인 사람은 교육수준
 에 따라 단조감소가 아니다. 고졸 미만이
 고졸보다 28.7% p 낮지만, 대학 이상은
 고졸보다 오히려 9% p 높은 수치를
 보인다. 따라서 두 번째 주장은 타당성
 을 잃는다. <나>의 입장에서 위 연구를 고려해
 보자면, 이러한 인과론적인 분석은 의미
 가 없다.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라는 두
 가지 원인이 건강상태를 결정한다고 보
 기에는 부족함이 있다. 두 가지 원인
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
 고, 그러한 가설적 원인이 또 다른 가

설 적 원 인 을 낳 는 무 한 궤 도 에 놓 이 게
 된 다 . 또 한 표 의 내 용 들 만 으 로 는 어 떤
 결 론 을 내 리 기 엔 데 이 터 가 부 족 하 다 . 따
 라 서 의 미 적 이 고 인 과 론 적 인 수 준 을 무
 시 해 버 릴 수 있 는 빅 데 이 터 가 필 요 하 다 .
 빅 데 이 터 를 이 용 하 면 가 설 설 정 을 할 필
 요 도 없 고 , 단 지 막 대 한 양 의 데 이 터 를
 컴 퓨 터 의 통 계 알 고 리 즈 м 에 적 용 함 으 로 써
 유 의 미 한 값 을 얻 을 수 있 다 . 그 러 므 로
 건 강 수 준 에 대 한 무 작 위 적 이 고 , 많 은 양
 의 데 이 터 를 축 적 한 다 면 인 과 론 적 으 로
 가 설 적 인 원 인 을 세 우 고 분 석 하 는 것 보
 다 훨 씬 의 미 있 는 결 론 을 내 릴 수 있
 을 것 이 다 .